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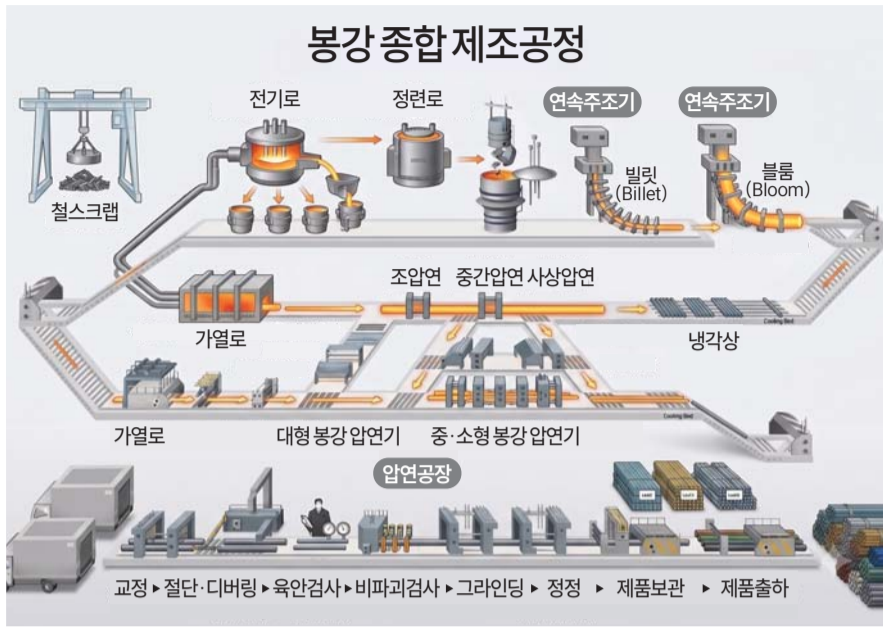
中 봉강 관세 부가면 원가 폭탄... 단조 中企 “버틸 수 없다”

세아베스틸 등 반덤핑 제소에 무역위, 중국산 봉강 조사 착수 9월 예비판정·내년 2월 결론 단조업계 “수출 경쟁력 약화” 수출용 관세 면제·환급 요청 국산 전환 지원·유예기간 요구

“중국산 봉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단조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예 중국 단조회사에 일감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누가 지키느냐.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단조 중소기업 한 관계자)

중국산 수입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조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이나 원자재 값 상승과 중국 단조업체와의 경쟁력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 관세까지 추가로 물 경우 앞진데 뒷진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단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용 원자재에 국한한 관세 면제, 국내산 봉강으로 대체시 제도적 지원 등이 가능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단조공



업협동조합(단조조합)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국산 봉강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단조업체 구제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조조합은 ▲해의 수출용 부품 기공을 위한 수입 봉강 물량 관세 부과 대상 제외 또는 사후 100% 환급 ▲국산 소재 전환시 발생하는 단가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매칭펀드 조성·수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책 수립 ▲국내 생산 불가 항목·대체 불가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6~12개월 적용 유예기간 보장 ▲별도의 공회회 개최를 통한 중소 단조·가공업체 목소리 반영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이란 원형, 정방형, 육각형 등의 형태로 된 길이 긴 강재의 한 종류로, 이수가 되고 있는 합금강 봉강은 자동차 부품, 기어, 샤프트, 베어링, 건설장비, 농기계, 산업 기계 등에 두루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합금강 봉강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철원특수강이 중국산 봉강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2월 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아철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각 나라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은 한국이 이들 제품의 주요 수입처가 되고, 결국 국내 철강산업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봉강의 덤핑률은 30.17%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철강회사들이 시세보다 30% 가량 싸게 팔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위는 지난 5월 21일 세아베스틸이 신청한 중국산 봉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으며 오는 9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내년 2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해 생산한 봉강(HSK 코드 16개 품목)이다. 불똥은 국내 단조 중소기업들로 튀었다. 국내·중국산 봉강을 함께 유통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중국산 봉강이 한국에 들

어온 것은 1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중국산이 시장을 많이 잠식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지금보다 봉강 가격이 최대 30~40% 정도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연관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조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탄소강·합금강을 사용하는 봉강은 건설장비, 농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주로 쓰인다. 특히 캐터필러(Caterpillar), 존 디어(John Deere)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은 치열한 수주 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봉강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조업계 한 관계자는 “단조에서 원자재 값 비중은 60% 가량에 달한다. 중국산 봉강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면 원가가 최소 15% 상승할 것이다. 관세 부과로 원가는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단조와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납품처와의 협상력에서도 밀리는 등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애경케미칼, 신소재 투자 결실... 하반기 매출 본격화

TPC 국내 공급망 구축 속도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 추진 아라미드·ESS 소재 시장 공략

애경케미칼이 준비해온 스페셜티 소재 사업이 하반기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아라미드 원료 공급망을 겨냥한 테레프탈로일 클로라이드(TPC)는 4분기 매출 반영이 기대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나트륨이온배터리 시장에 대응하는 하드카본 음극재는 전주 공장 증설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의 TPC 사업은 국내 아라미드 원료 조달 구조를 보완할 신규 소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

다. TPC는 방탄복과 항공우주 소재, 광케이블 보강재 등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의 핵심 원료다. 그동안 국내 아라미드 업체들은 TPC 상당 물량을 해외에서 조달해왔다. 수입 제품은 통상 고체 상태로 들어온 뒤 국내 공장에서 다시 액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운송비와 가공 부담이 뒤따랐다. 애경케미칼은 올해 1분기 울산공장에 TPC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TPC는 액상 형태로 공급할 수 있어 수입 제품을 다시 액상화해야 했던 고객사의 공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반기 고객사 계약과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면 4분기부터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요 수요처로는 효성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등 아라미드 생산업체들이 거론된다. 특히 태광산업이 아라미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TPC 수요 기반도 함께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생산 공법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애경케미칼은 TPC 생산에 광연소화 공법을 적용했다. 기존 일부 생산 방식보다 환경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법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생산 역량이 해외 고객사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음극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현재 고객사 파악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공장에 연산 1300톤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능력을 2만톤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드카본은 나트륨이온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음극재로 꼽힌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커 기존 흑연 음극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드카본은 내부 구조에 여유가 있어 나트륨 이온의 저장과 이동에 적합한 소재로 분류된다.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불리하지만 원재료 조달 부담이 작고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中企 우수제품 판로 지원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주방가구 공급 확대

라스텔리, 부산 이어 반포 단지 납품 LX하우시스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라스텔리(rastelli)’와 ‘쿠치네 루베(CUCINE LUBE)’가 재건축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주목받고 있다. 9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라스텔리’를 지난달부터 입주하고 있는 ‘부산 드파인 광안’에 공급한데 이어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주방가구 공급사로 선정돼 납품을 앞두고 있다. ‘라스텔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로 카피 라시드, 페루치오 라비아니 등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납장 구성 등에서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 최고급 아파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쿠치네 루베’도 이탈리아 주방가구 톱(Top)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약 80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LX하우시스는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B2B시장 위주로 공급하던 ‘라스텔리’와 ‘쿠치네 루베’를 일반 개인 고객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청주서 수소 순환경제 시동

하수 슬러지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공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내에 첫 자원순환형 청정 수소 생산(W2H·Waste-to-Hydrogen) 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 HTWO 에너지 청주 준공식을 진행했다. 서경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은 “HTWO 에너지 청주는 지역의 폐자원을 청정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기반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 사례”라고 말했다. HTWO 에너지 청주는 현대차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충전 복합사업장이다. 청주 지역 안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 및 공급한다. /양성윤 기자 ysw@

현대차그룹은 7500㎡(2269평)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위에 생산·충전 설비들을 구축했다. 하루 약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현대차그룹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30년까지 HTWO 에너지 청주의 하루 평균 수소 생산량을 2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HTWO 에너지 청주가 본격 가동되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운반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청주와 인근 지역의 수소 자원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HTWO 에너지 청주와 같은 에너지 자립 생태계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W2H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LS일렉트릭 아세안 전력시장 공략

베트남서 솔루션 대거 공개 LS일렉트릭이 베트남을 거점으로 아세안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지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전력망, 스마트팩토리용 솔루션을 공개하며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패키지형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현지시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일렉스 베트남 2026(EL ECS VIETNAM 2026)’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기업 중 최대 수준인 16부스(14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전환(DX), 스마트 전력관리, 스마트팩토리 등 4개 존을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